

현장시선



고 석 중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장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이 화두다. 생소했던 이 용어가 이제는 사회문제의 해결방안으로 민·관의 실천적인 경영, 정책 방향의 한 축이 됐다. ESG 경영이란, 'E(Environmental)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투명성을 바탕으로 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나가는 방식을 말한다. 기업의 이윤창출 과정이나 정부와 공공기관들의 정책 실천 방향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환경을 생각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투명한 지배구조를 만들어 나갔는지를 고민하도록 하는 기준이다.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작지만 중요한 실천부터

지난해 말 정부에서도 'K-ESG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본 진단항목과 추가 진단항목을 만들어 조직 경영에 적용하도록 지침을 제시했다. K-ESG 가이드라인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춰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시, 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 61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에서도 ESG경영이 어렵지만 한 구호가 아닌, 현장에서 적용이 가능한 실천적 도구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제주지사는 도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평생능력사업, 근로자들이 현장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국가자격시험, 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안전을 지원하는 외국인 고용지원 사업 등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지사는 공단 고유의 업무 속 ESG경영의 가치를 담고자 환경보전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제주지사 ESG 책임경영' 계획을 세우고 다양한 방식으로 ESG경영 실천에 앞장섰다. 올해에도 제주지사는 제주지역에 맞춘 ESG경영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가꾸는 데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쓰다 남은 부직포 가방이나 오래된 예코백을 기부해, 새롭게 꾸며 다시 사용함으로써 비닐 등의 생활쓰레기를 줄여나가는 활동 ▷교육을 듣고 싶어도 예산이 없는 영세 중소기업들에게 맞춤형 공동교육지원 ▷제주 환경 파수꾼 '올레-HRDK' 동호회 활동을 통해 해안과 오름에 버려진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 활동 ▷외국인근로자들의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휴대용 소화

기 배포와 찾아가는 공공 의료 서비스 ▷고효율 에너지제품 사용과 녹색 제품구매 구매 ▷그린오피스 구성을 통한 탄소 에너지 줄이기 운동 등 다양한 사업추진 과정에 ESG경영 가치를 적용시켰다.

지역의 한 공공기관부터 업무 하나하나에 ESG경영의 가치를 적용시키는 모습을 통해, 누구나 자신의 자리에서 실천을 통해 변화를 모색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모두가 세상을 이롭게 바뀌어가는 사회운동가가 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방식의 사회문제 해결 노력이 결국은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나가는 나비효과가 될 것이다.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작은 실천이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돌아와 우리사회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나가는 바람을 가져본다.

사설

4·3 보상·재심 본격, 빈틈없는 준비 총력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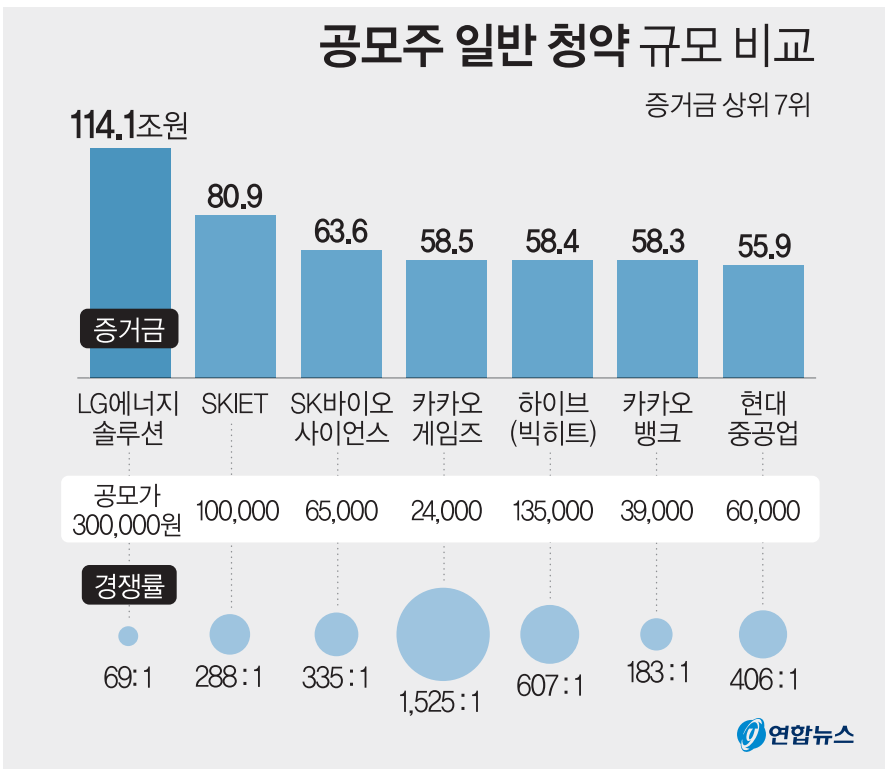
올해 4·3희생자 보상금 지급과 수형인 '직권재심' 추진으로 명예·피해회복사업이 본격화됐다. 희생자 보상금은 연내 보상을 위해 조직·인력 확충을 한 상태고,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도 임박했다. 4·3희생자의 실질적 명예·피해회복사업 개시라는 뜻깊은 의미를 살려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완벽한 업무 준비가 절실하다.

올해 4·3 명예·피해회복사업 예산은 작년보다 59% 늘어난 124억원(국비)이다.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33억원,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11억원 등 사업에 중점 쓰인다. 도는 관련 예산 확보로 하반기 희생자 개별보상 준비작업에 올인중이다. 도와 양 행정시에 전담팀 신설에 이어 조사요원 100여명에 대해 읍면동 확충도 마쳤다. 읍면동 신청 접수용 시스템도 작년

말 구축했고, 4·3위원회의 심의·결정용 시스템은 5월까지 구축된다. 연내 희생자 개별 보상금 지급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수형인 재심은 더 임박했다. 군사재판 수형인 2530명의 명예회복을 가릴 직권재심이 이달중 첫 청구를 한다. 일반재판 수형인 '특별재심'은 미군정 재판으로 '고민'도 있지만 이번주 내에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큰 관심사다.

행정이 보상금 지급·직권재심 등 명예·피해회복사업의 빈틈없는 지원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모든 희생자·유족을 대상으로 한 전례없는 일이자,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이지만 차질 없는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한다. 누구도 보상금 지급서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억울한 욕심이 누명서 벗어나도록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픽 뉴스



한라일보 제주의 대표 신문		발행인·인쇄인·편집인 김 건 일 편집국장 조 상 윤 ☎ 6318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154 대표전화 (064)750-211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 hl@ihalla.com	광고접수 본 사 750-2828 / FAX 752-7448 서귀포지사 732-5552 / FAX 732-5559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독신청·배달 750-233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 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열린마당

일관성



강 경 림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 방역총괄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어둡고 야속해지지만 한다. 그동안 막대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이 세상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현실에서 도피해 그들만의 세상 속으로 숨어 버리려 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를 약속할 수 없는 상황에도 지속적인 협조를 통해 힘을 실어준다. 이처럼 이기적인 무관심으로 일관하거나 소통으로 풀어가는 선택지가 함께 공존한다.

코로나19 백신접종과 함께 일상회복이 시작되는 듯했지만 최근에는 전파 속도가 빠른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대규모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불안감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일상 곳곳으로 침투해 세계적으로 극심한 공황상태에 빠졌고, 우리의 일상과 경제 바뀌고 멈춤으로 바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 또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생활에 많은 불편과 경제적 어려움을 감수함에도 단계적 일상회복은 멀게만 느껴질 뿐이다. 조금 참고 기다리면 지나갈 줄 알았던 우리의 예측은 빗나가 버렸다. 그러나 자기네 테두리에서 희생을 감내하며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 고비 때마다 지역사회 중심의 방역으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왔던 제주인들이 있었기에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었음을 잊지 말고 다시 힘을 모아야 한다.

내가 할 일은 언제나 경각심을 가지고 거리두기 실천하기, 손 자주 씻기, 마스크의 일상화, 그리고 백신 추가접종이다. 아직도 나는 내마음대로 하겠다는 안일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

처리난 양배추, 수출로 새로운 활로 찾자

제주산 월동채소 재배농가의 시름이 말이 아니다. 가격이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생산량이 늘어난데다 코로나19로 소비부진까지 겹쳐 가격이 평년보다 20~50% 내렸다. 결국 양배추는 산지에서 폐기하는 시장격리에 들어간다. 당근도 주산지 농협을 중심으로 시장격리가 진행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배추가 러시아와 홍콩으로 수출길에 올라 주목된다.

대정농협은 19일 유통센터사업소에서 양배추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러시아 사할린으로 수출하는 양배추 40t에 대한 선적작업을 진행했다. 2021년산 양배추 생산예상량은 5만6180t으로 평년보다 16.6% 늘면서 가격이 평년보다 50% 이상 하락한 상태다. 대정농협은 22일에 러시아 블라디보스크로 양배추 수출을 이어갈 계획이

다. 지난 8일과 13일에는 처음으로 홍콩에 양배추 2.4t을 수출했다. 앞으로 홍콩에 추가 수출할 때마다 1.2t을 선적하는 등 러시아와 홍콩 두 나라에 500t가량 수출할 예정이다.

가격이나 양배추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수출길이 뚫려 다행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수출량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새로운 길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물류비가 10배 가까이 올랐다는 점이다. 게다가 수출용 컨테이너도 부족해 물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농협이 감당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만큼 제주도와 제주농협본부가 이같은 애로사항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해외 수출로 가격이 폭락한 양배추에 대한 활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부 고

임태우((주)동방운수) 어머니 김해김씨 성자(향년 90세)께서 서기 2022년 1월 20일 10시 14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 ▶ 일 포 : 2022년 1월 21일(금요일)
- ▶ 발인일시 : 2022년 1월 22일(토요일) 오전 7시
- ▶ 발인장소 : 부민장례식장 2빈소
- ▶ 장 지 : 양지공원

아 들 임 태 우 며느리 고 계 생
영 남 한 미 숙
태 봉 김 덕 인
태 완
딸 임 영 미
장 손 임 상 섭

※ 연락처 : 임태우 010-2693-2888
임영남 010-3699-9695
임태봉 010-2696-5759
임태완 010-8660-5436
임영미 010-9913-7759
임상섭 010-6678-2726

감사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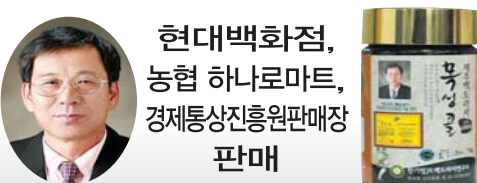
이번 저희 아버지 **진주강공 회선(前 축협 상무·향년 74세)** 상사에 바쁘신 중에도 정중하게 조의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마음속 깊이 감사 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뵈고 고마운 말씀을 올림이 도리어 오나 우선 지면을 빌려 인사를 올립니다.

2022년 1월 21일

부 인 김수열
아 들 강경문 며느리 강성순
딸 강현정 사 위 모민호

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신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독성불 미국식품의약국 SCI A급 등록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명인 / 2009 백도라지 명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급매 가격

- 1) 월드컵경기장 아래 대로변 865평 ★최저가300만원★
- 2) 강정동 해안도로 200m 근접 바다 조망, 한라산 조망 최고 건축가능, 아울렛예정지구 부근, 12m계획도로 진행중, 총 480평 ★평당130만원★
- 3) 강정동 해안도로 40m 741평, ★평당 200만원★ 펜션 및 전원주택지
- 4) 강정해안도로 접 607평 ★360만원★ 카페 최고부
- 5) 강정동 해안도로 100m 753평, ★평당 73만원★ 전원주택지, 투자용 최고
- 6) 강정동 해안도로위 땅 15m 건축 가능, 바다조망 카페용 펜션용 총 376평 ★240만원★
- 7) 호근동 법선 부, 최고 전원주택 360평, ★평당 200만원★ 건축 바로 가능

010-2102-5424 / 010-6275-5200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국내개발 우수한 [신품종] 감귤묘목 분양

-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될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 ▶ **하트매김 · 윈터프린스** - 연내수확이 가능한 만감류 과일시장의 새로운 강자!
 - 21년 11월 / 22년 3월(분양예약)
 - 가온실 10월~11월 수확가능
 - 황금향대조품종(품질이 쉽게 벗겨진다.)
 - (FTA)기금 우량 품종 경선사업 (감귤원 원지 정비사업)보조품종
 - ▶ **하트매김 · 미니향** - 작은 감귤이 맛있다! 고당도 소과형 감귤!
 - ▶ **하트매김 · 하레조생** - 당도는 높고 산함량은 낮은 고품질 과실품종.
 - ▶ **대조품종** - 제리몬(레몬), 탐나는봉(한라봉), 사리향(천혜향)

- ▶ **과수농가 보급품종**
 - 13년생 레드향, 한라봉, 천혜향
 - 황금향, 유라조생, 공진, 홍진, 카라향, 산화홍(붉은색 감귤)
- ▶ **가정원예(조경수)**
 - 2-7년생 하균, 팔삭, 세미논, 금굴, 당유자, 야마나스, 미니몬
 - 국내산 탕자묘목 판매 (신고번호 03-0182-2020-3)

제주한라농원은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제주한라농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991번길 1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7-20-02호
010-6500-2329